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41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대구·경북 여행 도민 2명, 신천지 유증상자 4명 ‘모두 음성’
- (3보) 11일 확진된 제주 방문 대구 확진자 추가 역학조사 결과 공개
- 제주도, 도내 콜센터 코로나19 차단 집중 점검
- 감염병 의사환자 이송 전용 음압구급차 추가 확보한다
- 제주도 제2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5월 이후로’
- 코로나19 최전선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로자 안전 철저
- 정부, 제주가 건의한 제주공항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 수용

2020. 3. 13.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3.13.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 ['20.3.13. 0시 기준]

○ (제주) 확진환자 4명 (격리해제 1명, 격리 중 3명)

구분 (단위: 명)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 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제주	1,608	4	1	3	0	1,604	60	1,544	68
일일 증감	+59	0	0	0	0	+59	+9	+50	+35
전국	248,647	7,979	510	7,402	67	240,668	17,940	222,728	

□ 입도객 현황 ['20.3.12.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7,718명 (작년 같은 날 대비 △46.0%, 전일 대비 +2.3%)

구분(단위: 명)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7,718	17,600	118	5	2	111
	2019년	32,781	28,638	4,143	2,514	227	1,402
	증감률	△46.0%	△38.5%	△97.2%	△99.8%	△99.1%	△92.1%
누계 (2.23.~)	2020년	299,571	294,109	5,462	386	588	4,488
	2019년	667,503	593,457	74,046	41,659	4,442	27,943
	증감률	△55.1%	△50.4%	△92.6%	△99.1%	△86.8%	△83.9%

○ 대구·경북지역 입도객 현황

- 대구-제주 항공노선(2편): (도착) 368명 (출발) 358명
- 대구·경북지역 출신학생 입도: 7명 (2.6. 이후 누계 : 137명)

□ 공항만 발열감지 운영현황('20.3.12. 기준)

구분 (단위: 명)	열감지자 총계	재측정 후 귀가 (37.5℃이하)	문진상담(37.5℃이상)		
			소계	진료상담 후 귀가조치 (의심증상 無)	선별진료소 이송 (의심증상 有)
일계	27	27	0	0	0
누계(2.3~)	1,538	1,432	106	82	24*

* 이송대상자 24명 중 17명 단순발열로 귀가, 7명 검사(음성7, 검사 중0)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12. 기준)

구분(단위: 명)	총계	제주도민	타 지역 주민(제주 체류)
일계	0	0	0
누계(3.7.~)	41	39	2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3. 13.(금)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 없음 ☐		사진: 있음 ☒ 없음 ☐		후속자료: 있음

대구·경북 여행 도민 2명 신천지 유증상자 4명 모두 음성

- 대구·경북지역 방문 도민 39명·체류객 2명 등 총 41명 검사 진행 -
- 2월 27일~3월 12일 신천지 관련 유증상자 81명 검사 결과 모두 음성 -

-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대구·경북지역을 여행한 도민 2명과 도내 신천지 신도 4명에 대한 추가적인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 대구·경북지역 여행력으로 도민 2명에 대한 검사가 추가로 이뤄지면서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 이후 검사 인원은 12일 기준 총 41명(도민 39, 대구·경북 거주 2)이다.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12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7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137명으로 파악됐다.
 - 이 중 103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다. 나머지 34명은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리를 받고 있다.
- 12일 대구↔제주노선 항공편 도착 탑승객은 368명, 출발 탑

승객은 358명으로 하루 평균 편도 탑승객은 평시 수준인 300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 대구-제주노선 출발 전과 도착 후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열 검사에서도 13일 오전 현재까지 특이 사항이 없는 상태다.

□ 한편, 제주도는 지난 11일 공식적인 모니터링은 종료*되었지만 12일 신도 4명이 의심 증상을 신고함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날 오후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

*신천지 명단 송부일(2.27)로부터 14일 경과에 따른 것임(중앙부처 지침)

대구 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상

(검사당일 기준 14일 이내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 무증상자)

- 1순위 : 주민등록상 주소가 2월21일 이전 제주도민으로 되어 있는자
(*2월 21일 기준은 우리도 첫번째 대구 관련 확진자 발생)
- 2순위 : 제주도 주소를 갖지 않은 자(도외)로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자 중
1주일 이상 체류자(체류기간 증명확인 항공권, 영수증 등 확인 전제)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기획조정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064) 710-8820

[붙임] 대구·경북 입도자 관련 통계
코로나19 대응 제주국제공항 방역현황

붙임 대구 · 경북 입도자 관련 통계

□ 대구-제주 항공노선 탑승객 현황 ('20.3.12. 기준, 잠정치)

제주국제공항 대구-제주 간 항공기 운항 제주출발 및 입도 현황 (단위: 명)									
	3/1~4	3/5	3/6	3/7	3/8	3/9	3/10	3/11	3/12
제주 출발	1,096	311	321	319	374	355	312	303	358
제주 도착	1,315	357	357	304	219	295	364	369	368

※ 출 · 도착 2회 발열체크, 도착 시 이동경로 구분, 이동경로 1일 2회 방역

□ 대구 · 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12. 기준)

대구 · 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 (단위: 명)							
	누계(3/7~)	3/7	3/8	3/9	3/10	3/11	3/12
계	41	17	4	15	3	2	0
도민	39	15	4	15	3	2	0
제주 체류객	2	2	0	0	0	0	0

□ 대구 · 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20.3.12. 기준, 잠정치)

대구 · 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단위: 명)								
계	자율격리 해제 (2/6~2/27)	14일 미경과 소계	14일미경과 (2/28~3/12)					
			2/28-3/7	3/8	3/9	3/10	3/11	3/12
137	103	34*	16	2	5	2	2	7

* 대 학 별 학 생 관 리 : 34명(제 주 대(격리기숙사16, 자가 등 14) 관광대(자가1), 한라대(대학 자체숙소 3))

□ 공 · 향만 발열감지 현황 ('20.3.12. 기준)

공 · 향만 발열감지 현황 (단위: 명)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열감지자	4	40	13	23	25	44	31	15	27*
누계(2/3~)	1,320	1,360	1,373	1,396	1,421	1,465	1,496	1,511	1,538

* 대구발 비행기 탑승객 중 9명 발열감지 후 체온측정 시 발열 등 증상 없어 귀가조치

(3보) 11일 확진된 제주 방문 대구 확진자 추가 역학조사 결과 공개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월 10일 제주를 떠난 후 11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의 추가 동선을 공개했다.
 - 도의 역학조사 결과 3월 13일 9시까지 추가된 동선 한 곳에 대한 소독방역은 이미 완료되었다.
 - 추가된 동선은 3월 9일 17시 30분부터 19시 20분까지 다녀간 식당이다.
 - 이에 따라 추가 파악된 접촉자 1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모두 18명이며,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모두 완료 되었다.
 - 해당 접촉자들은 제주도 전담공무원의 모니터링 하에 이상이 없을 경우 확진자의 접촉일로부터 14일 간 자가격리 된다.
 - 제주도는 추가 접촉자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격리조치를 할 계획이다.
- ※ 붙임 1. 제주방문 대구 확진자 동선 및 조치상황 등 세부내역
- 한편, 제주도는 역학조사 결과 공개는 불필요한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방역 상 필요한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방침이며,
 - 질병관리본부 지침은 증상발현 하루 전을 공개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방역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또한, 도 관계자는 “최근 확진환자 동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로 애꿎은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며, “유언비어 유포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도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 밝혔다.

※ 도는 지난 7~8일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한 구로콜센터 확진자(서울 199번)의 7일 15:00~16:00 동선 중 “소노캄 제주(구 대명 샤인빌 리조트)” 는 표선 소재라고 밝혔다.

붙임 1
제주방문 대구 확진자 추가 동선 및 조치사항

일자	시간	이동 경로	접촉자	조치사항
3.1. (일)		<i>코업시티호텔 하버뷰(위미리 소재) 체크인</i>	직원 5명 손님 1명	방역소독완료
3.8. (일)	17:15 ~17:20	외출 (마스크 착용)		
	17:20 ~18:40	흥부가 (남원읍)	직원 1명 손님 4명	방역소독완료
	18:40 ~18:50	숙소 행		
3.9 (월)	11:10 ~11:20	외출		
	11:20 ~12:00	은혜네 맛집	직원 1명 손님 4명	방역소독완료
	12:00 ~12:10	숙소 행		
	17:10 ~17:30	외출		
	17:30 ~19:20	청솔골 식당	직원 1명	방역소독완료
	19:20 ~19:40	숙소 행		
3.10 (화)	11:00	<i>코업시티호텔 하버뷰 체크아웃 (마스크 착용)</i>		
	11:00 ~12:00	콜택시 이용 공항 도착	택시운전사 1명	
	14:25~	대구발 비행기(TW804)로 출도		

※ 환자 진술, CCTV 기록, 카드사용내역 수신 메시지 등으로 이동경로 확인

※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이동경로 및 접촉자 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제주도, 도내 콜센터 코로나19 차단 집중 점검

- 주요 콜센터 7곳 350여명 대상, 마스크 착용·발열체크 등 근무환경 개선지도 -
- 콜센터 자체 방역대책과 사전매뉴얼에 따른 관리 체계 구축 -

□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로 다중밀집공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주120만덕콜센터를 비롯한 도내 주요 콜센터 7곳 및 민간 콜센터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지도와 방역에 나섰다 밝혔다.

○ 제주도내 주요 콜센터에는 KT제주고객센터 160여명, KN웍스 70여명, 120만덕콜센터 35명, 제주은행 콜센터 27명, 제주항공 고객센터 21명, 한전고객센터 19명, 제주전기차서비스 EV 콜센터 18명 등 총 3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 이외에도 제주도는 유관부서를 중심으로 택시 콜센터, 여성 긴급전화1366제주센터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도 이어갔다.

□ 이번 긴급 점검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1일과 12일 코로나19 대응회의에서 “서울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제주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 감염발생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하며 집단 근무·이용시설에 대한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한 후속 조치이다.

□ 제주도는 종전의 방역관리 대응 지침을 대폭 강화하여 지난 11일 도민안전실을 중심으로 도내 각 부서 및 행정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소관하고 있는 콜센터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

한 주기적인 점검 및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각 부서별 현장점검에 나섰다.

□ 제주 공식 민원서비스 제주120만덕콜센터는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 단계였던 지난 1월 28일부터 35명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해 근무하고,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 기준보다 강화된 자제 소득기준을 마련해 주 1회 콜센터 건물을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에 주력해 왔다.

*** 제주 120만덕콜센터 운영 현황(2020년 3월 기준)**

- 근무인력 : 35명, 운영시간 : 365일, 07~22시, 1일 평균 상담문의 : 1,373건

□ KT제주고객센터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를 비롯해 1일 3회 발열체크를 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매일 전문업체의 방역도 진행하고 있다.

○ 제주항공 고객센터, 카카오 자회사 KN웍스 또한 1일 2회 이상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근무자간 거리유지 또는 상담석 칸막이 설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점검지도에서 제주도는 콜센터 직원의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 체계를 점검하여 사업장-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항을 사업들과 논의했다.

○ 특히 몸에 이상 있는 직원이 호흡기 질환일 경우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

청했다.

-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조만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지난 2달간의 자체적인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많은 노하우와 전반적인 예방수칙은 대부분 공개된 상황”이라며 “정부의 방침도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던 제주의 방침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별로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 관련 문의: 도민안전실 양기정 재난대응과장 064) 710-3630
특별자치행정국 강동우 자치행정과장 064) 710-6830
미래전략국 현경화 정보정책과장 064) 710-2340
보건복지여성국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064) 710-2860

감염병 의사환자 이송 전용 음압구급차 추가 확보한다

- 현재 도내 음압구급차 1대 운영중... 6개 보건소에 추가 배치 정부에 요청 -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당국은 현재 도내 보유 음압구급차는 1대 이며 지난 3월 9일, 추가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음압구급차는 병원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특수 제작한 차량이며, 현재 도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1대를 운영 중이다.

* 제주한라병원에서 관리하던 음압구급차를 2월 6일부터 코로나19 대응 효율화를 위해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변경배치

□ 한편, 지난 3월 9일 제주도 보건당국은 구급차 지원관련 정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음압구급차 6대 구입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공식 요청하였다.

○ 도내 보건소 현황(6개소)를 고려하였으며 보건소 당 1대씩 배치되어 환자(의사환자 포함)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예정이다.

○ 현재, 보건복지부의 긍정적인 답변과 더불어 논의를 진행하는 등 요청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절충을 강화하고 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자 및 의료진 안전과 코로나 19 도내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압구급차 배치가 중요하다” 고 하며, “앞으로도 음압구급차 등 의료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 관련 문의 : 보건건강위생과 과장 정인보 ☎ 064-710-2910

제주도 제2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5월 이후로'

- 당초 4월 4일 시행 예정 경력경쟁 임용·지역인재 선발시험 연기 -
- 코로나19 확산 따른 수험생 안전 고려... 추후 변경일정 별도 공고 -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4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경력경쟁 임용 및 지역인재 선발' 필기시험을 5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 이는 코로나19 위기정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수험생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 변경되는 시험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 시험 연기에 따른 공고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채용정보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응시생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 2020년 제2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는 257명이며, 2020년 지역인재 선발시험 응시자는 6명이다.

□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 김만덕기념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세계 물의 날' 기념식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 관련 문의: 총무과 한미숙 인재채용팀장 064) 710-6221
상하수도본부 이영준 경영관리과장 064) 710-7710

코로나19 최전선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로자 안전 철저

-매일 발열검사, 차량·차고지 소독, 마스크 필수-
- “사용한 마스크는 잘 접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안전망 구축과 사각지대 메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제주도는 폐기물을 다루는 환경미화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에 따르면 양 행정시는 청소차량 운전원과 미화원을 대상으로 매일 발열 검사를 하고, 청소차량과 차고지 및 휴게시설 소독과 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전체 청소차량 290대에 모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운전원·미화원, 가로청소원, 배출제도우미, 재활용도움센터 근무자 등 관련 인원 약 2,200명에게 12일 현재까지 마스크 53,824장을 보급했다.
- 또한 매립장과 재활용품 선별장,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19곳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출근 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민원인도 발열검사 후 출입이 가능하다.
- 폐기물처리시설 현장근무자 약320명에게 12일 현재까지 마스크 3,754개를 지급했고,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자가격리자 생활폐기

물, 폐마스크 등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근무자의 안전 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한편, 제주도는 사용한 마스크는 가급적 접은 뒤 귀걸이 끈으로 묶어 가연성종량제 봉투에 버려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사진]



※ 관련 문의: 환경보전국 김길범 생활환경과장 064)710-6080

정부, 제주가 건의한 제주공항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 수용

-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22개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

- 제주국제공항 내 입주업체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한 제주국제공항 내 상업시설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 제주도는 제주-중국 간 직항노선 전면중단(2.2~)과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단(2.4~)로 인한 입주업체의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30~40% 수준의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다.
-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항공사를 통해 고정임대료를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을 25%로 정하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적용키로 했다.
 - 매출연동임대료를 적용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을 적용해 기본 3개월에 추가 3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이자 면제된다.
- 제주공항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혜택을 받는 대상업체는 제주공항 전체 입주업체 36개 중 22개 업체다.

○ 대기업과 공공기관, 은행 등은 제외되었으며, 14곳은 감면대상이고, 8곳은 유예대상이다.

□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홍보하고, 참여기관 등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이에 따라 제주도 산하 제주관광공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상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등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5곳도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관련 문의: 공항확충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 〈참고〉
1. 감염병 예방수칙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6.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방법
 8.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9.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참고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국민안전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가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s://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참고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문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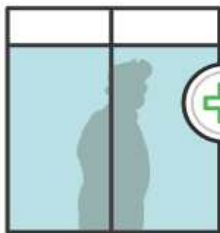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료요청(열 40도 이상 30분간 지속)이 발령된 후 격리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참고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스트레스

건강하게 극복하세요!

2020.3.6. 1/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감염병 스트레스

입원 치료 및 격리 과정, 감염병 위험에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한 감염병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불안과 공포가 커져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의심이 많아져 사람들을 경계해요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져요

2020.3.6. 2/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상담 지원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확진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인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관련 정보와 심리자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감염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등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는 우선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고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2020.3.6. 3/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기**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요.
-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받기**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힘든 감정 털어놓기**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어보세요.
-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
충분한 수면, 운동, 건강한 식사 등으로 정신건강을 지켜요.

2020.3.6. 4/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 기울이기**
어린이의 수준에 맞추어 감염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격리된 환자 및 가족의 불안감 스트레스 도와주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그 가족들의 힘든 감정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세요.
-  **의료인과 방역요원 응원하기**
감염병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2020.3.6. 5/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위기상담전화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	--

누리집

국가트라우마센터 | <https://nct.go.kr>
질병관리본부 | <http://www.cdc.go.kr>

2020.3.6. 6/6

2020.3.7.

코로나19통합심리지원단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통합심리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이 있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불안하고
쉽게 놀라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원치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멍하고
혼란스러워요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감염병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확인하세요!

만약, 위와 같은 반응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055-520-2777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발행일 : 2020.2.27.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